

대행 스님

오히려 죽는다 하면 사는길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 길을 잘못 가고 있는지요

질문 :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음공부를 한다고 놓고 가다 보면 왠지 바보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얕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인공 자리에 놓는 공부가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일까요?

답변 : 옛날에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써 붙이기를, 한 군데는 길이 돌사닥다리 골짜기로서 험하다고 써 놓고, 한 군데는 아주 대로(大路)로 좋은 길이라고 써 놓고, 또 한 군데는 가다 보면 춤도 추고 술을 마시는 주막도 있고 쉴 자리도 많은 좋은 길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길을 가만히 보면, 공부에 뜻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대로가 좋다고 갈 거고, 또 공부에 뜻이 있는 사람은 '내가 대로를 찾으려고 왔느냐? 험하더라도 내가 갈 길은 꼭 가야만 하지.' 하면서 험하지만 바른 길을 택해서 갈 테고, 또 그냥 논다니 같은 사람은 '뭐, 젊음이 십일홍 넘어가면 다 없어질 텐데 아니 놀고 어떻게 가랴.' 그러고선 험한 길을 되돌아서 가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세 길로 나누어져 있는데 수행자가 택한 길은 아주 험악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죽은 해골도 그냥 늘비하게 있고, 불쌍하게 죽은 축생들의 해골도 늘비하게 늘어져 있고, 귀신도 많은 그런 길이에요, 아주 소로(小路). 그런 길을 걷고 있는데, 가면서 모조리 집어먹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지요. '둘이 아니다' 하면 집어먹는 거니까. 둘이면 집어먹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조리 집어먹고 가다 보면 길은 빨라지고 정말 날 수도 있는 길, 그냥 떠서 가는 길이 생기지요.

그렇듯이 만약에 지금 우리 앞길에 별의별 것이 다 쌓여 있다고 한다면, 축생이나 아귀, 아수라 같은 차원이 낮은 것들이 죽어서 쭉 있으면 이걸 치우고 길을 가야만 하겠죠? 그래서 정말 참 선의 길은, 아주 천야만야하고 좁은 골짜기고 길이 험하고 사람이 죽어서 해골이 이리저리 구르고 그러는 데가 바로 우리 지금 공부하고 가는 길이죠.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속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말하면서도 하지 않는 법,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않는 법, 귀로 들으면서도 듣지 않는 법,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걷지 않는 법' 이 네 가지를 다 한데 합쳐서 놓는 법이며, 바로 이것이 삼매에 드는 법이며, 참선이며, 참 행이며, 도 행이며,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자기를 깨쳐서 광대무변한 법을 들이고 내는 데 손색이 없고, 걸림이 없고, 여여함을 뜻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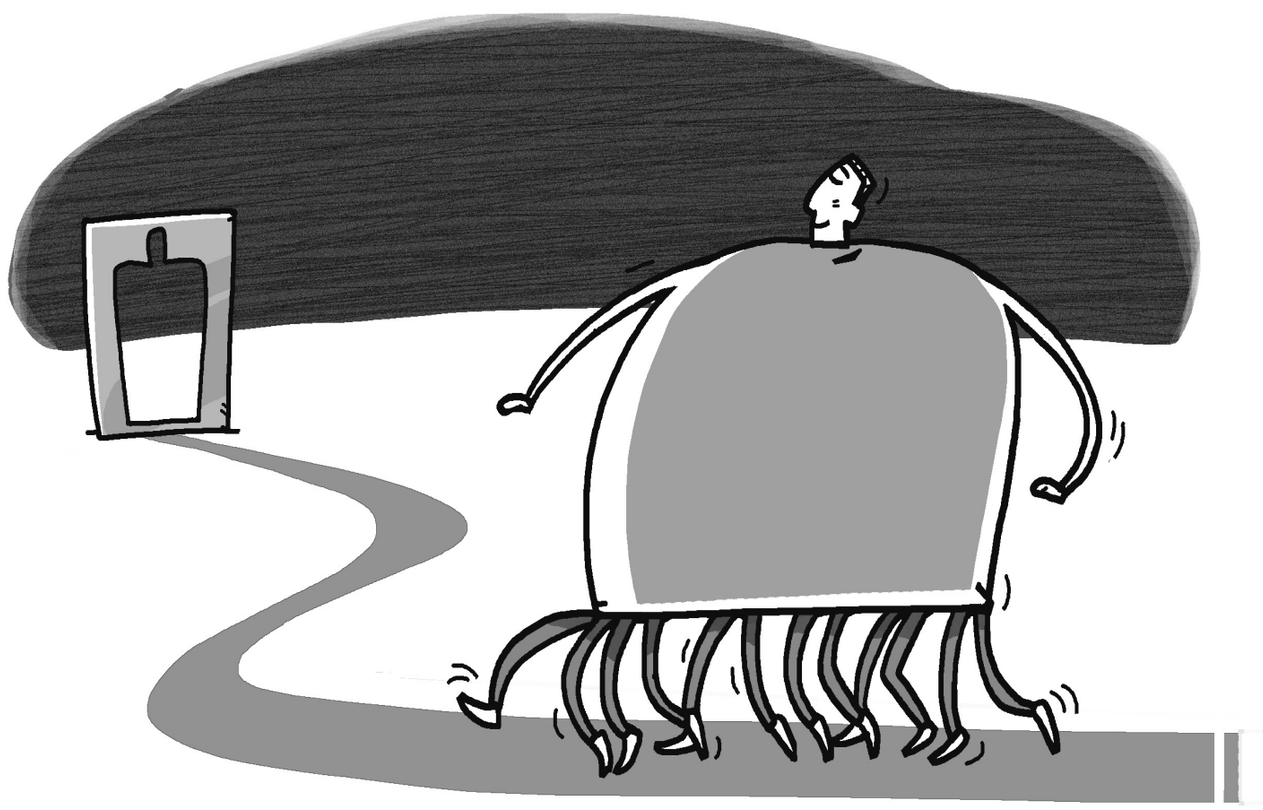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꿈에 뭐가 보이든, 낮에 서로 상대가 생기든,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굴하지 말고, 어떠한 걸 보더라도 속지 마시고, '아! 저것도 모를 때 내 모습이겠지.' 하고 이해를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꿈을 잘못 꾸었다 해도 '화해서 모습을 보이는 거지. 저것도 내 모습이겠지.' 이렇게 자꾸 하나로 돌린다면, 우주도 축이 있어야 돌아가고 지구도 축이 있어야 돌아가듯이, 맷돌도 축이 있어야 돌아가고 모든 기계도 축이 있어야 돌아가듯이 우리 인간도 축을 빼놓고는 안 됩니다. 축으로 인해서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도리를 배워서 생활이나 일체 만법을 운용하고 나가면서, 영구적이고도 영원하면서 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여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중용의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도입니다.

몸이 아프니 관하는 힘도 약해져요

질문 : 마음공부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보니 관하는 힘도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힘을 내서 다시 공부를 다잡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몸이 아파서 누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눕게 한 놈이 누구냐는 겁니다. 아파서 눕게 한 놈이 누구냐? 그거를 알면 아파도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니깐 일으키는 것도 네가 일으키는 거지. 네가 형성시켰으니깐 네가 일으켜라.'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한다면, 설사 몸은 누워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한잠 자고 일어나듯 그렇게 가벼워질 테죠. 그런데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집착을 하면서 의사한테 어떤 말을 들었으니까 들은 대로 그냥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끄달리니까 몸속의 생명들도 꼭 그렇게 듣고선 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될 수밖에요. 그래서 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산다 하더라도 그렇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렇고 아주 미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발짝을 성큼 뛰려고 해도 뛸 수 없으니까 요만큼만 뛰어야 알맞겠다고 생각하고 떼어 놓고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덮어놓고 그냥 막 떼어 놓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깐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는 한 발 한 발 겁내지 말고 떼어 놓고 사시라 이겁니다. 이 공부를 하는 데 마음으로 뛰어넘을 때는, 우리가 지혜를 넓혀야 되겠다 할 때는 가차 없이 떼어 놔야 하는 거죠.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이건 길이 아니고 저 산꼭대기에 있는 저게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걸 믿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생각을 하니깐 믿게 되는 거죠. 저 언덕배기가 길이라고 그러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뜻이 있으니깐 믿는 겁니다. 여기가 길이니까 저기가 길이 아닌 것만은 사실이지만 길이라고 하니까 한번 그 뒤의 문제를 좀 알아보자 하고선 올라가서, 까만 데 올라서서 보니까 허공만 보이거든요. 허공만 보이니깐 '어, 이게 허공 길이구나!' 이런 거죠. 허허허. 그러니까 내가 가 보지 않으면 모르고 생각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발달이 된 세상에서, 옛날에는 몸으로 가서 봐야 알았지만 지금은 생각으로 다 할 수 있지 않은가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이게 길이 아니라 저 높다란 산꼭대기가 길이라고 한다면 생각으로도 거기에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지혜가 모자라서, 거기가 길이라면 그냥 올라갔지만 말입니다. 나 어려서만 해도 그렇게 못 듣고 못 보고 했으니깐 어리석은 일이 많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육체의 고행이 아니라도, 정신의 노력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진 땅이 이만큼 있어도 그 진 땅을 넘어서면 아무 기탄이 없는데, 그 진 땅을 넘어서지 않고 다리를 걷고 부들부들 떨면서 걸어가니까, 그거 씻어야지, 뭐, 이것저것 죄 해야지, 옷을 갈아입는 이런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쩍 뛰어넘어라 이랬습니다. 마음으로 뛰어넘으라는데 왜 못 뛰어넘느냐. 마음으로 뛰어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억지로 할 수 없나 봐요, 그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모두 제 마음을 가지고도 제 마음대로 못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문제가 크죠. 병고 때문에 고통이 큰 게 아니라 그 병고를 느끼는 마음이 문제라는 겁

☞ A18면으로 계속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